

청각장애인의 생활공간과 사용행태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기숙사 공간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adequacy between student residence and living behavior of the hearing impaired

곽 윤 정*	김 경 연*	임 진 이**	이 연 숙***
Kwak, Yoonjung	Kim, Kyoungyeon	Lim, Jeanny	Lee, Yeunsook

Abstract

The changes of social climate in respecting differences and needs of each diverse groups and human equality have caused the disabled to persue quality of life, through enabling their lives more independ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adequacy of the residence and living behavior of the hearing impaired. Though this reach it was expected to find out environment features which have become obstacle in maintain their life independent in normal way and the way of improving their environment. Small group workshop with three hearing impaired persons was implemented. Living behavior and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of dormitory and interaction between them were identified. The need of non auditorial communi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found far beyond required guidelines of the disabled Act. Design professionals need more profound knowledge with and ethical and humanistic attitude to find and satisfy the need of disabled.

키워드 : 청각장애, 생활행위, 유니버설디자인, 커뮤니케이션

Keyword : the hearing impaired, living behavior, universal design, communic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대학생활은 사회로 진입함에 앞서 과도기적 시기로 전문지식을 익히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대학교육은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비장애인들과 교우 관계를 익히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감각기관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비장애인들과 자유롭지 못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책임감이 결여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캠퍼스에서 특히 기숙사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한다면 모두는 보다 성숙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삶이 일어나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보다 더 자립적이며, 덜 장애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 형성된 이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이동장애를 겪는 지체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요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장애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인 배려와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관심을 덜 받게 되었다. 특히 환경시설과 관련된 법률은 ‘무장애 공간’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침을 제시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청각장애인등을 배려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장애인 개인에게 내제된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난 공간의 계획과 활용에 관한 문제(이연숙, 유니버설디자인, 2005)이며 환경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개선되었을 때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덜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약자를 일상적 환경에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장애인 통합교육, 장애인 통합 고용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재활복지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sineyelin@hanmail.net)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법,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복지실천운동본부 그리고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는 ‘2007 친구야 함께 놀자’ 통합교육캠프, 노사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마라톤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는 그 대표적인 대상공간이다. 이를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학교의 환경과 교재 등 제반조건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생활공간의 전반적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주로 장애인시설의 법적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통한 실제 현황과 요구사항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서희숙, 2006. 이정훈, 2004. 소준영, 2005) 편중되어 있어 이들의 요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기숙사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을 원활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유니버설디자인개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에서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난 제반환경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와 환경문제를 미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1.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는 환경에서 일상생활 행위와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장애영역 중 상대적 관심이 적었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일상 생활환경에서 환경행태의 적합성을 문제화하여 다루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청각장애인이 생활환경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쾌적하게 장애를 느끼지 않거나 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2.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찰

2.1. 청각장애의 정의 및 범위

청각장애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난청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청각기관의 일부가 내적,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병변이 생겨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¹⁾.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은 듣기와 말하기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려서부터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

게는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2차적인 장애로 언어장애를 함께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가 청각기관 손실에 의한 신체적 장애인 동시에 의사소통과 정보의 장애에 따른 사회적 장애라고도 할 수 있다.²⁾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각장애 추정 인구는 229,15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절차 방법을 모르거나 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 혜택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는 실제조사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청각장애인의 특성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의 영향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청력의 손실로 인하여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현실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정서활동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³⁾. 또한 청각장애인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시각, 냄새, 촉각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감각 기관이 발달되어있으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소리로 이용 가능한 경보기, 신호, 부저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전화 및 음성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골필도 전화기나 팩스등 대체 기기들을 사용하게 된다. 현대사회 기술의 발전으로 이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반 청각장애인 모두에게 보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⁴⁾ 청각장애인의 인지기능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⁵⁾ 제 2의 사회적 조건인 환경의 제약성으로 인해 후차적 장애가 증가되지 않도록 환경의 지원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2.3.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다. 장애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체장애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1) 김학영, 복지 및 편의시설, 그 현황과 실태, 1999

2) 배둘런 외2, 청각장애 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2002. p142
3) 김경연, 일반청소년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심리연구, 2000
4) 오영근, 조병울, 장애인의 행태를 고려한 실내디자인 계획에 관한 연구, 2002
5) 금경외2,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학습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언어학습 시스템의 구현,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04.

관련된 법률⁶⁾은 국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대표적인데, <표1>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편의증진법에서 발췌한 내용이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의무사항은 전혀 없고 권장사항도 승강기와 경보에 관련된 내용뿐이다.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⁷⁾’와 ‘무장애학교설계기준⁸⁾’을 살펴보아도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있을 뿐 특별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들은 생활 환경에서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기숙사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구분		내용	
내부	권장	승강기	도착여부는 점멸등 또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한다. 내부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전면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출입문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생	비상	비상	조작하기 쉬운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한다.
		객실	바닥의 진동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므로 바닥재를 고려한다.
침실	객실	객실	객실등 화장실 욕실에는 청각장애인용 초인종을 설치한다.
		침실	장애인은 비상시 대피에 대한 배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기타	권장	경보 및 피난설비	비상시 발코니, 테라스 또는 기타 피난로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설치한다.

* ‘편의증진법’ 중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법률 발췌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부문 중 학교환경 특히 학교생활의 상당부분이 일어나는 교내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맥락적 환경인 대학과 주 대상인 기숙사 그리고 연구대상 학생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일반적 특성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교육부에서 2002년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비장애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학생수는 약500명이고 장애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약 45%인 220명으로 청각, 시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영역의 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화통역, 속기, 점자교재, 음성교재등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⁹⁾.

6) 이후 ‘편의증진법’으로 부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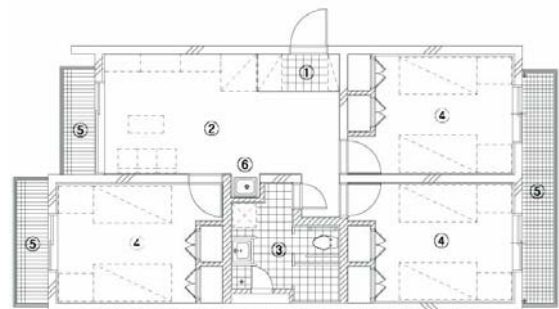
7)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

8)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2. 무장애학교 설계기준

2) 한국재활복지대학 기숙사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기숙사는 남, 녀 기숙사 2개동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남자기숙사는 5개 층의 35개실로 총 150명의 학생이 기숙하고 있고, 여자기숙사는 7개 층의 40개 실로 총 120명의 학생이 기숙해 있다. 각 실에는 장애와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여 장애학생이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움을 주고받게 배려되어 있다. 본 공간은 위 대학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설립되어진 곳이므로 특별히 무장애공간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살펴보는 데 앞서가는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등 제반 관점에서 주요 예제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 하였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 기숙사 내 단위공간을 선정하였다. 단위공간은 유닛하우스로 각 공간 구성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각 유닛하우스는 방 3개, 거실, 욕실, 발코니 등을 독립적으로 구비한 집과 같은 형태의 공간이다. 6~7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데,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거주하며 서로 협력하게 하고 있어 환경적 지원과는 또 다른 인적 지원을 감안하고 있다.



①현관 ②거실 ③욕실 ④침실 ⑤ 발코니 ⑥세면대
그림 1. 기숙사 단위 공간 평면

3)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청각장애학생 중에서 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본 대학의 기숙사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생활을 한 사람으로 환경특성에 대해서 생활 경험이 풍부하여 기숙사 내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형성되어 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시각이나 지체장애등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제한을 두어 청각장애인의 생활상 고유한 문제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3.2. 연구방법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어떤 가치나 의견, 실태 등을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특정 환경과 사용자 행태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그려내는 사례연구로서

9) 임진이, 장애인의 대학교육 환경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질적 연구방법에 속한다.

본 연구는 ‘소집단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소집단 워크숍 방법은 작은 규모의 집단이 공통으로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의식과 요구가 상호 교류되고 개인의 범위를 넘는 공통의 요구가 표출되는 장점이 있다¹⁰⁾. 즉 「워크숍」이란 단순 인터뷰와는 달리 교육적 특성이 들어가 있는 특성이 있으며 여기서는 타 응답자들의 의견 청취와 토의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학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워크숍의 형태는 개별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답에 비해 상호 타인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토의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수정 제고하게 되며 또 상대적인 순위를 가려내는 등 참가자 스스로가 자기의 응답을 배워 다듬어 나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고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소집단 워크숍을 수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이고 폭넓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환경과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미시적 방향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구조가 구성되었다. 이 질문구조의 구성은 <그림2>와 같다.

1단계	기숙사의 전반적인 지원기능 만족도
2단계	기숙사 내 단위유닛공간별 만족도
3단계	기숙사 내 일상행위의 가치척도

그림 2 워크숍 진행 질문 구조

첫 단계는 레포를 형성하고 보다 편안한 토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쉽고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의 특성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후 구체적인 기능성을 제시한 후 의견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기숙사의 유닛 하우스 내 현관, 거실, 욕실, 침실, 발코니 공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로 일련의 생활행위의 범주를 큰 범위로 제시하여 중시하는 것, 즐거운 것,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큰 행위의 범주 내 세부적인 행위별로 즐거운 것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질문하였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세밀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의 과정에서 평면을 제시하여 간과하였던 부분을 재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워크숍의 질문을 마친 후 직접 기숙사 현장을 방문하여 토의 중 나온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절차를 거쳤다.

본 워크숍은 2006년 5월 26일 한국재활복지대학 내에서 이루어 졌다. 한편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토의는 연구자와 수화통역자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수화통역자는 실제 해당 학교의 청각장애인을 교육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교사로서 대상자와 아주 원만한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당한 인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워크숍 진행 과정

3.3. 타당도와 신뢰도

1) 타당도

삶을 지원하는 환경을 계획한다는 것은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의 목적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환경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 인만큼 이에 대해 타당한 결과는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주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또 최소 3개월 이상 생활하였을 때 그 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숙사의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생활이 일어나는 기숙사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그 논의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적합성 문제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신뢰도

응답자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지, 응답자의 답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가 자료의 신뢰도를 가늠한다. 첫째로 이 연구의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이지만 만큼 연구자의 의도가 제대로 대상자에게 전달되었는지와 또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연구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것은 그 어느 연구 상황보다도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온 청각장애 지원보조교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응답이 신뢰성 있게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련의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보다 수월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의 구조를 포괄적인 질문에서

10) 이연숙 외,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 행위 분석연구,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지 9권, 2007.5.

점차 구체화해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여 답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토의와 더불어 생활 행위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기숙사 평면도 제시하여 수화로 응답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놓친 것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probing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수화 통역자가 함께 조사 대상 자들과의 모든 토의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4.1. 기숙사에 기대하는 생활 지원기능

소집단워크숍에 참여한 대상자¹¹⁾는 모두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화는 수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화통역으로 전달이 어려운 부분은 글로 설명하였다.

기숙사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유롭게 질문하여 나타난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학생은 “방에 혼자 있을 때 방송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b학생은 “사감 선생님의 점호에 응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c학생은 “욕실 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알지 못해 문을 열게 되는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내방송을 포함한 정보는 문자로 알려 주길 원했으며, 욕실 문에는 ‘사용중’의 표시가 나타나길 원했다. 이는 환경자체에 인지적인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능성을 편리성, 경제성, 융통성, 안전성, 위생성, 건강성, 치유성, 쾌적성, 향균성, 에너지효율성, 문화성, 조형성, 품위성, 감성, 지능성 등으로 열거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생각하게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생활공간 내 기능성 요구 순위

특성	대상	학생		
		a	b	c
편리성			1	
지능성		1	2	
안전성		3		2
향균성		2		
위생성				1
감성				3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a와 b학생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기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특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전성은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잦은 사고와 연계되어 언급되었다. 향균

성과 위생성은 단위 공간 내 함께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이 외부에서 사용한 휠체어로 거실까지 이동함에 따라 먼지 등이 유입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들 청각장애학생은 기숙사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를 메신저로 전달받기 원하였다. 생활공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은 설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들에서 보여진 반응이 다양함은 청각장애인의 요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우선순위 또한 각기 달라 청각장애인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청각이라는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법적으로 기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뿐이며 청각장애인을 어느 정도까지 다양하게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2. 기숙사의 공간 별 만족도

공간을 현관,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분하여 만족하는지, 불만족 하는지에 대해 질문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나타난 답변은 공통적인 의견이기 보다는 개인적 취향이 강하였다. 특히 침실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고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룸메이트와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자고 싶어도 불을 끌 수 없어” 불만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현관에 대해서는 “신발이 자주 없어져 불만이다”와 지체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현관 앞 경사로 때문에 넘어질 것 같다”는 불만도 제기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도 있어 청각장애인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간 별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않는 면이 있다. 둘째 일반적인 학생 특히 기숙사생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공통적인 현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셋째 특정 장애를 배려한 조치가 일반인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이는 다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시켜 거주하게 하는 환경의 경우 이들 모두를 보편적으로 만족시키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중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논하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집합적으로 사용하는 기숙사라는 공간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공간사용자인 학생들의 생활면에 부합되도록 그 자체적인 특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배려되어야만 진정한 장애인과 일반인을 통합시키는 학교와 기숙사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11) 연구대상자를 a,b,c로 명명하였다.

4.3. 기숙사 내 일상행위 가치

기숙사의 공간적인 컨텍스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며 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이루어졌다. 즉 환경의 단순한 물리적 가치가 아닌 사용상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행위를 10가지로 제시하고 그 중 중시되는 것, 즐거운 것 혹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그림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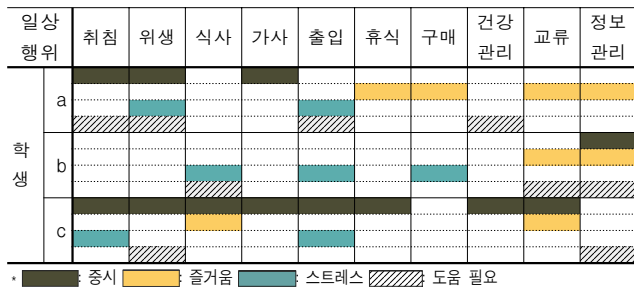


그림 4. 생활관 내 일상행위 가치선호도

가치선호도 조사결과 중시하는 요건은 개인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 면에 치중되기도 하며 다양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기도 하였다.

a학생은 취침과 위생, 가사행위 등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었다. 휴식과 구매, 교류, 정보 관리에 대해 즐겁게 느끼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하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생행위와 출입행위를 언급하였는데 위생행위에 대한 이유는 “6-7명이 함께 사용하는 욕실 안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두기능이 한 공간에서 이뤄짐으로 인해 세탁행위를 번거롭게”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으로 인한 불편함이 아닌 물리적 공간의 배치에 따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입행위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자유롭게 드나들어”프라이버시가 보장받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일상생활 상 점호를 놓치게 되는 취침이나 욕실에 놓인 세탁기 사용으로 인한 번거로운 위생행위, 출입, 취사행위의 불가로 인한 건강관리에 대한 차원이었다.

b학생은 정보관리 행위 중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고 있었다. 즐겁게 느끼는 것으로는 정보에 대한 교류와 함께 교류행위를 언급하였다. 불편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식사와 출입, 구매행위이다. 식사행위와 구매행위 대한 이유는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약된 시간에 해결해야 하며 조리할 수 있는 설비와 구매가 갖춰지지 않아 식사행위가 어렵기 때문이었으며, 출입행위에 대한 이유는 a학생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이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는 식사와 교류, 정보관리 행위이다. “식사메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어 식사의 여부를 결정”하고 움직이길 원했으며, 주변 친구를 통해 “과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c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의 생활상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시하는 행위로 취침, 위생, 식사, 거서, 출입, 휴식, 건강관리, 교류를 언급하였다. 이들 중 특히 피로를 풀 수 있는 취침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즐거운 것에 대해 식사와 교류행위로 친구들과의 식사를 통한 교제가 즐겁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행위는 취침과 출입행위였다. 취침에 대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때 불을 끄고 잘 수 없다”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출입현관의 자동센서가 인지 영역의 문제로 “거실 내에서 이동시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조명의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교란이 생겨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행위는 욕실 사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행위와 점호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는 정보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각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가 전반적으로 교류와 정보행위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젊은 특성으로 모두 즐거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학생이 공통적으로 출입행위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각 개인의 생활상 가치관이 다르며, 둘째 똑같은 기숙사 환경에서도 이들 각자가 처한 미시적인 환경 상황과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비록 3명이지만 각 개인의 개성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 준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청각 장애에 대한 관점에서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일 뿐이다. 청각장애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 하겠다.

4.4. 기숙사 내 세부적인 생활행위와 환경과의 관계

단위 공간 내에서의 세부적인 생활행위에 대해 즐거운 것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행위와 환경적 특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운 행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 질문하여 나타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3>과 같다.

교류적 측면으로 외출행위를 좋아하며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하고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TV를 시청하기도 하

었다. 또한 인터넷메신저와 홈피관리, 카페를 통한 교체, 인터넷의 정보이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로 인한 것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대표되는 교류행위로 볼 수 있다.

표 3.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행위와 환경적 특성

특성 내용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행위		
	교류적 측면	재정관리 측면	관리적 측면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행위 인터넷메신저이용 홈피관리 카페를 통한 교체 인터넷정보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뱅킹 현금지급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및 세탁기 사용 비데사용 쾌적한 온도 건강 체크

재정관리 측면으로서 인터넷 뱅킹과 현금지급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특히 교내 현금지급기의 설치로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시각적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측면으로는 청소하고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널거나 비데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와 관계한 부분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 하였다. 또한 교내에서 24시간 냉난방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온도조절이 쉽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보건센터를 쉽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2)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활행위와 환경적 특성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행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 질문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 4.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활행위와 환경적 특성

특성 내용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활행위		
	인지적 측면	물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 및 세면 시 수전찾기 어려움 기상 시 알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공간 부족 욕실과 세탁공간 분리 이층침대 오르기 바닥의 미끄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 후 옷 보관 빗자루 외 청소도구 부족 냉장고 이용의 번거러움

인지적 측면으로 “샤워나 세면 시에 거품으로 인해 눈을 뜰 수 없을 때 물이 나오고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센서에 의한 수전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기상 시 전화의 진동알람을 이용”하는데 몸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인지 할 수 없었다. 원활한 기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느껴졌다.

물리적 측면으로는 침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심지어 발코니에 옷장을 두고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욕실과 세탁실이 분리되기를 원하였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또한 취침과 기상 시에 “이층침대의 사다리가 직

각으로 되어 내려올 때 미끄러지는 사고를 경험”경우와 “샤워하고 나올 때에도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험”도 피력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잦은 사고로써 이를 위한 물리적 구조가 보완되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에 대한 설비가 마련될 필요하였다.

관리적 측면으로 샤워 시 갈아입을 옷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에 젖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 청소는 즐거운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빗자루의 사용으로 위생적으로 청소하기에 어려웠다. 생활공간의 청결한 관리를 위한 도구가 마련되어야 했다. 냉장고의 경우 휴게실에 하나만 마련되어 있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주인이 구분되지 않아 도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5. 기숙사 내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 지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청각 장애학생 스스로에게 묻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크게 청각장애와 연계해서 개선점이 나타난 것과 일반적으로 잘못된 환경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을 <표5>과 <표6>로 별도로 정리해 보았다.

표 5. 기숙사 내 청각장애를 위한 환경개선 지침

특성 공간	기숙사 내 청각장애 관련 지원요소	
	인지적 측면	물리적 측면
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자 알리는 시각적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자동인식센서 불필요시 잠금장치 설치
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방송 및 정보 이용의 시각적 시스템 	-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호알림 조명 기상 알람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을 바라보는 가구배치 옷장 간 거리확보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워중'등의 사인 '세탁완료'사인 수전자동센서 	-
발코니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메뉴 알림 	-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청각장애와 관련한 지원 요소는 인지적 측면과 물리적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적 측면으로 현관에서는 방문자를 알려주는 시각적인 장치에 관한 것이었다. 거실에서는 교내 방송 및 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교내 생활에 대해 쉽게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침실에서 요구되는 것으로는 현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점호에 대해 효율적으로 응답하도록 돕는 조명 시스템과 기상 시 알람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원하였다. 욕실에 대해서는 샤워중인 지 아닌지를 앞에서 쉽게 인지하기 원하였고, 세탁완료에 관한 사인이 욕실 밖 공간에서도 확인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욕실 내에서 수전에 대한 자동인지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식사메뉴를 문자로 미리 확인하기를 원했다.

청각장애학생은 현관 점호 시와 욕실 사용 등에 심리

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서 친구에게 부탁하고 있었지만, 친구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욕실 사용자가 사용 시에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에 소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 문을 열 경우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욕실 공간 사용과 행위에 있어서 환경이 지원한다면 '사용 중' 등의 다양한 사인을 설치하여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수는 개인의 존엄성과 에티켓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신체적인 차이를 타인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을 경우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빛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특히 조명이 가이드와 주의를 집중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환경에 내재하도록 하거나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제품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측면으로는 현관자동인식 센서가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잠금장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및 잘못된 인지를 하지 않도록 하며 무엇보다 인지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하였다. 또한 방의 출입문을 바라보도록 책상이 배치되어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학생들을 바라보아 뒤늦게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룸메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옷장 간, 방문과의 거리가 확보되어 그 상대방을 인지하지 못해서 자주 발생하는 부딪히는 사고가 자연히 감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도 물리적인 공간적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요소와 상관없이 기숙사 내에 요구되는 지원성은 아래의 <표 6>와 같다.

표 6. 기숙사 내 환경개선 지침

특성	기숙사 내 보편적 환경개선요구사항 지원요소	
	물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
공간		
현관	■ 경사로공간 확보를 통한 미끄럼방지	■ 신발 도난방지
거실	■ 수납공간 ■ 싱크대 공간확보	-
침실	■ 조명 부분 사용 ■ 프라이버시 보장 ■ 이층침대로 접근의 용이	■ 수납공간
욕실	■ 변기시설과 샤워실 분리 ■ 거울높이조절 ■ 미끄럼 방지	■ 갈아입을 옷보관
발코니	■ 세탁기공간 확보 ■ 세탁물 건조공간 확보	■ 수전 배치
기타	-	■ 청소도구사용의 용이함

물리적 측면으로 현관에 휠체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현관 경사로가 공간부족으로 가파르게 설치되어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이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있는 학생들과 단위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타 장애 지원 요소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불편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실공간에서 수납공간 충분히 마련되길 요구했다. 침실에 대해서는 3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조명에 대해서는 각자 조절하여 서로에 대한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받기를 원하였다. 또한 욕실에 대해서는 변기시설과 샤워실, 욕실과 세탁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적 특성이 분리되어 기다려야 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배치되길 원하였다. 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거울이 휠체어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어 키에 맞지 않아 행태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또한 타 장애 지원요소가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발코니공간은 세탁기와 세탁물 건조공간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현관 등에서 도난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침실에서 개인 수납공간의 확보가 지원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욕실에서도 옷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발코니에 수전이 마련되어 청소 및 사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타의건으로 다양한 청소도구가 마련되어 청결한 생활을 돕길 원했다.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성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에서는 이들 모두를 함께 배려하고 수용하는 지원에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대적 코드에 따라서 사회통합이 필수적인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통합을 실현하는 하나의 학교를 현장으로 하여 과연 그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기숙사가 배려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환경과 생활행태와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기준일 뿐 실생활에서는 장애의 상황은 다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 현장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생활에서의 만족도라는 것은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게는 미시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바라보는 과정은 일반적인 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설계에 접근하게 하는 지름길을 형성하게 하는 연구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진 한국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 통합을 지향한 선도적인 통합학교 중 하나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수준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알고자 하였다. 다양한 장애영역과 비장애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법적인 규제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들을 배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 공간에서 생활할 때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하여 벽에 모니터가 설치되거나 메신저를 통한 문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욕실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수전자동센서등을 설치하거나 인터폰이나 방문자를 알리고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점멸등의 설치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계자들이 장애인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장애를 배려한 설계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적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던지는 것은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적은 인원으로 실행한 연구이지만 생활과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청각장애인들의 행태적 분석을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소규모 워크샵 형태를 통해 심층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들여다보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설문 조사를 통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들을 문서로 작성하였을 때 청각장애인들이 질문내용을 정확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고 심층적인 정성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개선사항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수화만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에서 좀 더 면밀하게 생활상을 볼 필요가 있다. 즉 비록 청각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 청각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일반인들과 같이 각각 개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장애학생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항들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보다 훨씬 예민하고 상황적인 것들이 많았다. 즉 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자세에서 창의적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일반장애와 청각장애를 비교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학교란 접근성과 교통의 문제로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학습을 위한 행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여 전인적인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의 기숙사에서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 복지수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태도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모두가 만족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사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
2. 금경애 외2인, 2004.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학습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언어학습 시스템의 구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7권
3. 박윤정의, 2007.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행위 분석연구,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지 9권 1호
4. 김정숙 외1인, 2005. 대학생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숙사 관리현황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권 2호
5. 김정영, 2000. 일반청소년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심리연구
6. 김학영, 1999. 복지 및 편의시설, 그 현황과 실태, 대한건축학회지논문집 제43권 9호
7. 배둘린 외2, 청각장애 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2002. p142
8. 서희숙 외3인, 200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세부항목의 설치현황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11호
9. 소준영 외1인, 2005.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10. 오영근, 조병율, 2002. 장애인 행태를 고려한 실내디자인 계획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4권 4호
11. 이연숙외,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내 생활행위 분석연구,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지9권, 2007.5.
12. 이정훈 외2인, 200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제24권 2호
13. 임진이, 2005. 장애인의 대학교육 환경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장윤정., 2000.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조사 :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방향 모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15. 장윤정, 이연숙, 2001.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요구 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3호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7.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2. 무장애학교 설계기준